



21대 국회 마침내 개원 제21대 국회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통합당-국민의당, 정책연대 시동 건다

민주당 수적 열세 극복·정책 경쟁 의지 청문회·안보 등 현안별 공조 체제 전망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정책 공조를 위해 본격적인 연대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정책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연대 출범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양당은 9월 정기국회 이전인 다음 달 중 정책연대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책 연대는 주요 현안별

공조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양당 지도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이미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양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에 먼저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은 국회 중에 △공정사회 실현(청년일자리 공정채용·윤리향 사태 방지·의회민주주의 확립) △코로나19 위기극복(위기탈출 민생지원·감염병 방역강화) △경제활성·민생활력(내수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동산시장 정상화·폭력없는 안전사회 조성) △안심·안보체계 구축(당당한 대북정책 추진·국제사회 공조 정상화) 등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당 역시 △아동 주치의 제도 △청년기초연금 △고용보험 사각해소 △다층 실업안정망 △노후 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일원화 △난임지원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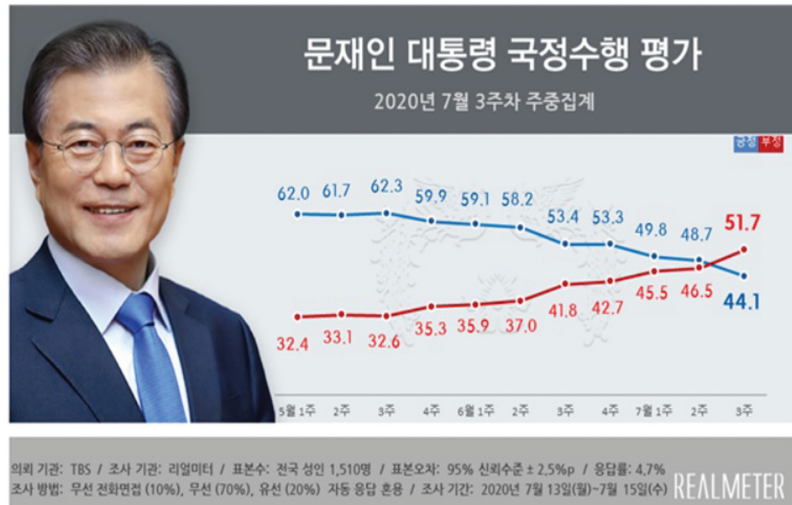
가책임제 △안심보육 △3~5세 교육정책 △건강보험 형평성 강화 △1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법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양당의 정책연대체 출범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각종 현안과 관련해 거대여당의 독주가 심화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를 시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당으로서도 통합당에 바른미래당 시절 함께했던 의원들이 남아있어 다른 정당보다는 연대에 수월한 편이다. 통합당은 "현재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를 위한 협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정이나 내용 등 구체적 사안은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금 정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적인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돼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할 것인지 말할 수 있다"며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얘기할 때는 정기국회 전으로 논의했다. 실무 논의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 양질 일자리 태부족...청년 고용시장 악화”

전남이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상'을 수상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청년들의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15일 일자리정책본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민선 7기 도정 최우선 정책으로 추

진하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남은 지난해 고용률 63.4%로 전국 2위(제주 제외)를 달성했으며, 실업률은 2.6%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민호 의원은 "고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실업률은 낮는데 1인당 소득은 전국 꼴찌"라며 "고용지표는 개선됐지만 도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취업자 수가 1만 7000명 증가했지만 이 중에는 불안전취업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불안전취업자는 경제가 위기에 놓이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계층이므로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민생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지지율 44.1% 女·서울·30대 무너졌다

부정 51.7% '데스크로스' 21.2%, 제주(46.9% vs 43.0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대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하며 20주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1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한 2020년 7월 3주 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67주 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7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6%p(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함 24.5%, 잘하는 편 19.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2%p 오른 51.7%(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7.1%)로 집계돼 지난 2월 4주차 이후 다시 데스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보다 0.6%p 감소한 4.2%였다. 긍정 평가는 오차범위 밖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3월 2주차 조사(긍정 47.2%, 부정 49.1%) 이후 18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서울(8.7%p↓), 여성(9.5%p↓), 30대(16.1%p↓), 중도층(7.3%p↓)에서 부정평가 상승하면서 주도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평가 74.1% vs 부정평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